



“여기가 인생샷 맛집~”

ACC 하늘마당 나들이객 인기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이 인생사진 찍기 좋은 소풍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각종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달 하늘마당에는 4만8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최근 이른 더위와 함께 잔디밭에서 자유롭고 시원한 낭만을 즐기려는 방문객이 급증, 오후 8시경에는 잔디밭이 돛자리로 가득 차는 상황이다.

하늘과 맞닿은 문화전당 정원인 '하늘마당'은 6천988.7㎡ 규모로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열린 공간이다. 주변이 산책로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ACC가 잔디 보수작업을 거쳐 지난달 4일 하늘마당을 공식 개방한 이후 지난달에만 4만7천724명이 '하늘마당'을 찾았다. 지난 3월 하늘마당 방문객은 2만8천159명, 4월엔 2만1천56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하늘마당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도심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자연풍광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도 좋아 아무때나 소풍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탁 트인 전망과 넓고 푸른 잔디, 제철 꽃을 심은 화단, 줄 조명(스트링라이트) 등 사진기만 하면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어 20~30대 사이에 'SNS 성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도 동력이었다. ACC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4만8천여명 방문객 찾아 거리공연, 소풍·야경명소 입소문 젊은 세대 취향 겨냥한 포토존도



최근 젊은이의 취향에 맞게 하늘마당 사진 촬영구역(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했다. 하늘마당 잔디밭 오른쪽에 위치한 포토존 윗부분을 흰색, 빨강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원단으로 불결 모양을 형상화해 동적인 움직임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이용객의 발길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다음달 24일부터 9월6일까지는 야외 전시 '하늘풍경'이 진행된다. 오는 10월3~6일에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본선이 하늘마당 등 ACC 일대 4개 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하늘마당' 앞 미디어큐브에선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실감콘텐츠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 워크숍'에 참여한 예술가·창작자의 작품 13편이 오는 30일까지 낮 12시, 오후 7시에 상영돼 화려한 볼거리를 더한다. 이강현 전담장은 "ACC는 최근 2회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우뚝 섰다"며 "하늘마당 외에도 열린마당 배롱나무 숲, 상상마당, 아시아문화광장 쉼터 등 다양한 열린 공간에서 여유와 낭만, 그리고 문화가 있는 삶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신진 성악인들, 꿈의 무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2023 성악콩쿠르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2023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광주은행과 KCTV광주방송이 후원하는 '2023 광주성악콩쿠르'는 한국을 대표할 성악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음성음악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 광주성악콩쿠르는 성악 분야

최고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3세 이하 성악 전공자이며, 오는 7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경연방식, 참가자격, 심사기피제 등 변동 사항이 있어 모집요강을 잘 숙지해야 한다. 경연은 오는 8월19일 예선과 8월28일



'2022 정음성음악제' 1위 수상자 최준영

본선으로 치러진다. 총상금은 3천800만원으로 1위 1천500만원, 2위 1천만원, 3위 500만원, 4위 200만원 등이다. 최고 입상자 특전으로 '정음성음악제' 공연 시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상급 성악가들을 배출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콩쿠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위스 바젤 극장 주역 서선영 소프라노(2006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를 차지한 김기훈 바리톤(2015년),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한 김병민 베이스(2015년), 신진 유망주 박기훈 테너(2017년), 김민석 테너(2018년)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벨기에 린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바리톤 김태환 역시 '2022 광주성악콩쿠르' 2위 수상자로서 'K-클래식스타' 탄생을 알렸다. /최명진 기자

장희구 박사 (506)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月夜會飲(월야회음) - 가주 이상질
叢篁近月自生風 復有荷花小閣東(총황근월자생풍 부유하화소각동)
莫道他鄉愁遠客 主人樽酒不曾空(막도타향수원객 주인준주불증공)
대숲에 가까운 달 저절로 바람 일고
작은 누각 동편에 연꽃까지 피었는데
주인집 술동이에에는 술 떨어질 날 없네.

타향이 먼 나그네 수심케 한다고 말해 보게나



조주삼배(朝酒三盞)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술은 낮술보다는 저녁술이 제격이다. 달빛이 환하게 비친 야밤에 술독에 빠진 달을 마시는 흥취는 이백의 시선을 생각하게 된다. 흥에 취해 한 곡조 뽑는 가락은 천하의 일품이었을 것이고, 소담이 적시는 가슴은 너그러웠을 것이다. 이것이 밤에 모여 앉아 나누는 대화의 정겨움이다. 대숲에 가까운 달 저절로 바람이 일고, 계다가 작은 누각 동편에는 연꽃까지 피었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타향이 먼 나그네 수심케 한다고 말해 보게나'(月夜會飲)로 제목을 붙여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가주(家州) 이상질(李尙質:1597-1635)로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1633년 한남, 성균관직강을 역임하고 암행어사로 북관에 갔다가 돌아와 호당에서 사가독서를 했다. 1634년 원종을 종묘에 추송하려는 것을 간하다가 종성으로 유배됐고, 이듬해 풀려나 돌아오는 길에 회양에서 죽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대숲에 가까운 달 저절로 바람이 일고 / 계다가 작은 누각 동편에는 연꽃까지 피었다네 // 타향이 먼 나그네를 수심케 한다고 말해 보게나 / 주인집 술동이에에는 술이 떨어진 날이 없었다네'라는 한 덩어리 시상이다.

위 시제는 '달밤에 모여 술을 마시며'로 번역된다. 선현들의 시를 읽다보면, 맑은 기운에 쓰는 시상보다는 술을 한 잔 하면서 쓰는 시상이 시의 멋과 맛을 톡 쏘게 한다. 진심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심은 시지를 가득 채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해 보인다. 그래서 흔히 '주색시'(酒色詩)라는 말을 숨김없이 했다. 술 한 잔에 시를 쓰고, 시 곁에는 여인이 곱게 단장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생각은 선경(先景)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음을 알게 한다. 대숲에 가까운 달 저절로 바람 일고 계다가 작은 누각 동편에 연꽃까지 곱게 피었다는 시상 주머니다. 달이 비치니 바람이 절로 일고, 연꽃까지 피어서 절경을 이뤘으므로 곱게 보이는 그림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자는 자연의 섭리를 한 아름 부여안고, 타향의 수심에 스스로 달래는 방법을 찾아냈음을 알게 된다. 타향이기에 먼 나그네 수심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게나, 그렇게 되면 주인집 술동이에 결코 술이 떨어진 날이 없을 것이라 했다. 고향 생각이 남수룩 술로 시름을 달래면서 시상의 열개를 충만할 수밖에 없었음을 비친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叢篁: 대숲. 近月: 달이 가깝다. 自生風: 저절로 바람이 일다. 復: 다시. 계다가: 有荷花: 연꽃이 있다. 小閣東: 누각 동쪽. // 莫道: 말하지 마라. '道'는 말하다. 他鄉: 다른 고향. 愁遠客: 먼 나그네의 수심. 主人: 주인. 樽酒: 술동이. 不曾空: (술이) 떨어질 날.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